



조퇴하겠습니다! 스토리 문서

작성자: 유경록

## 목차

문서 작성 일자 (업데이트 내역).....	3
등장인물.....	4
Prologue. 평범했던 하루 .....	5
Stage 1. 별빛고 복도 (저녁).....	6
Stage 2. 별빛고 운동장 (저녁).....	7
Stage 3. 퇴근동 길거리 (저녁).....	8
Stage 4. 저녁 밤하늘 .....	9
Epilogue. 교실 (밤).....	10

## 문서 작성 일자 (업데이트 내역)

---

업데이트 기록	
작성 내용	작성 일자
최초 작성	2024. 05. 10

## 등장인물

---

김민준: 주인공.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지만, 어느 날 문득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야자를 째고 조퇴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박성민: 민준의 가장 친한 친구. 학교에서는 선도부를 맡고 있다.

담임: 학교의 학생주임이자 민준의 담임. 좌우명은 입신양명이며 급훈 또한 입신양명으로 정했다.

경비원: 외국인 경비. 옛날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소문이 있다.

의문의 노인: 퇴근동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할머니.

## Prologue. 평범했던 하루

---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하루. 민준은 언제나 그랬듯이 친구인 성민과 함께 석식을 먹은 뒤 운동장을 걷고 있었다.

“이야... 오늘 날씨 지인짜 좋다. 그치 않냐?”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뱀은 성민이었지만, 그 한 마디의 말은 민준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민준은 성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하루가 민준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하루가 되는 순간이었다.

“와... 야, 하늘이 원래 저렇게 높았냐?”

민준은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성민에게 말했다. 성민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민준에게 말했다.

“야, 그럼 가을이니까 하늘이 높게 보이는 거지. 그러게 과학 시간에 즐지 말라고 얘기했냐 안했냐”

가을에는 하늘이 높게 보인다. 그런 과학적인 사실은 민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민준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이다.

“아 맞아, 나 선도부 일 있어서 먼저 가본다. 이따 야자 때 보자.”

“어...어영”

멀어져가는 성민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한 민준은 넓은 하늘 위로 커다란 새가 날아가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 평소였다면 대수롭지 않게 봤을 일이지만, 오늘따라 그 새가 자유롭게 보였다. 새는 민준의 위를 빙글빙글 날아다니다 학교 담장 너머로 사라졌다.

“좋겠다... 저게 진짜 자유 아닐까? ... 자유? 난 왜 자유롭지 못한 거지?”

부러움으로 시작된 감정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는 데 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잠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던 민준은 무언가 결심한 듯 교실로 돌아갔다.

‘입신양명’

교실로 돌아온 민준은 칠판 위에 커다랗게 써 있는 급훈을 바라보았다. 출세하여 이름을 널리 알려라. 한자에 별로 관심이 없는 민준까지 그 뜻을 외울 정도로 그의 담임이 매일같이 말하던 말이었다.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자유로워지고 싶어.”

급훈을 바라본 민준은 교실에 들어오기 전 다짐했던 결심을 다시금 되뇌었다. 용기를 얻은 민준은 교실에서 가방을 챙겨 교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 Stage 1. 별빛고 복도 (저녁)

---

“선생님, 저 오늘 야자 못할 것 같습니다.”

민준이 용기에 가득 찬 목소리로 담임에게 말했다. 담임은 황당하다는 듯 민준에게 말했다.

“무슨 일인데. 다음 주 시험이라서 야자 빼면 안 된다고 아까 말하지 않았어? 안 돼.”

방금 전까지 민준을 감싸고 있던 용기가 담임의 한 마디에 눈 녹듯이 녹아내렸다. 민준은 애절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담임에게 애원했다.

“선생님 제발요. 저 진짜 오늘은 야자 못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건데? 일단 이유나 들어보자.”

민준은 담임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의 민준이었다면 여기서 교실로 돌아갔겠지만, 오늘의 민준은 저 아름다운 하늘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 순간, 담임의 회초리가 민준의 머리를 강타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헛소리하지 말고 교실로 돌아가. 너는 내가 이따 교실에 있는지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민준은 억울했다. 왜 이 학교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아까 그 새처럼 자유롭게 학교를 벗어날 수 없는 걸까? 잠시 고민하던 성민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며 말했다.

“허락을 해주시지 않겠다면... 에잇!”

민준은 교무실을 박차고 나가 뛰기 시작했다. 담임이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학교를 뛰어서 빠져 나가면 그만이라는 것이 민준의 생각이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지는 지금의 민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뛰어가면 못 잡을 줄 알았냐!”

그 때,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다. 담임이 미친듯한 속도로 민준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이대로 붙잡히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한 민준은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니, 우리 학교 복도에 원래 이렇게 책상이 많았나?”

말 그대로 이상하리만큼 복도에 책상이 놓여있었지만, 지금 민준에게 중요한 것은 책상이 아니었다. 붙잡히면 끝장이다. 공포 반, 희열 반의 기분으로 민준은 책상을 뛰어넘으며 담임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 Stage 2. 별빛고 운동장 (저녁)

---

필사적으로 달린 끝에 민준은 학교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민준이 숨을 고르려던 그 때,

“거기! 경비 아저씨! 저 학생 좀 잡아요!”

복도 저 멀리서 담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화들짝 놀라 옆에 있던 경비를 바라보았다. 경비는 담임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은 듯 의문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이씨, 맞다. 저 사람 외국인이었지. 헤...헤이! 다니엘! 캐치! 캐치 힘! 배드 스튜던트!!”

담임이 서툰 영어를 외치며 외국인 경비원에게 호소했다. 경비원은 그제야 담임의 말을 알아들은 듯 빙긋 웃은 뒤 민준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경비원과 눈이 마주친 민준은 섬뜩한 감정을 느끼며 경비원과 거리를 벌렸다.

“거기 Student! Stop!”

민준의 예상대로 경비원은 무서운 속도로 민준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경비원. 옛날에 특수부대에서 일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라는 생각도 잠시, 민준은 다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운동장에 공이 많아! 장애물은 또 뭐고!”

운동장에는 축구공, 농구공 심지어 럭비공까지 다양한 공들이 바닥 곳곳에 흩뿌려지듯 놓여 있었다. 공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육상부에서나 쓸법한 허들까지 놓여 민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마치 학교 전체가 민준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 꾸며져 있는 모습이었다.

“Hey, stop!”

경비원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민준은 장애물을 피하라 도망치라 바쁜 와중에도 전에 느껴본 적 없었던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겠습니까아아아아”

민준은 필사적으로 달려 경비원을 따돌렸다. 마침내, 민준은 교문 밖으로 발을 내딛었다.

### Stage 3. 퇴근동 길거리 (저녁)

---

학교에서 빠져나온 민준은 경비원이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달렸다. 마침내, 숨이 차오른 민준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퇴근동이었다.

“아후, 겨우 빠져나왔네... 아니, 외국인은 반칙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뱉는 민준이었지만,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쾌했다. 노을로 가득 찬 퇴근동의 저녁 하늘. 민준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다.

“야~ 김민준!”

퇴근동의 풍경을 만끽하고 있던 그 때, 민준의 감상을 방해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가장 친한 친구인 성민이 그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재가 왜 여기 있어...? 아, 선도부!”

“야! 김민준! 너 거기 그대로 있어! 너 잡아오면 담임이 상점 준다고 했어!”

“아오, 이 배신자가아아!!!”

배신감에 화를 내는 것도 잠시, 민준은 다시 성민을 피해 달리기 시작했다. 분명 방금 전까지 몸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달렸지만, 여기까지 와서 붙잡힐 수는 없었다.

“야! 너 나보다 느리잖아!! 괜히 힘 빠지 말고 멈춰!”

“너 같으면 멈추겠냐아아아”

점점 좁혀져 오는 거리. 민준의 마음이 급해졌지만, 야속하게도 오늘따라 길거리에 열린 맨홀 뚜껑과 널린 바나나 껍질이 눈에 띄었다.

“아니, 그니까 평소에는 길이 이러지 않았다니까아~”

분명히 무언가 이상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민준은 맨홀 뚜껑을 뛰어 넘고 바나나 껍질을 피해가며 성민에게서 도망쳤다.

“그니까, 달리기는 나한테 안 된다니까 참...”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성민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는 정말 틀렸다 싶어 좌절하고 뒤통수를 멈춘 바로 그 때, 민준의 앞에 평소 육교에서 물건을 팔던 할머니가 다가왔다.

“학생, 자유로워지고 싶어?”

“네?”

“이거 받아. 도움이 될 거야.”



“이게 뭔데요? 아니, 그보다 갑자기 왜?”

“나도 옛날에 아쿠아리움에 갇혔던 적이 있었거든. 자유를 찾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달까? 호호”

할머니는 그 말과 함께 홀연히 사라졌다. 민준은 손에 쥔 물건을 바라보았다. 날개 같이 생긴 무언가가 손에서 빛나고 있었다.

“야, 파란불이다. 힘 더 빼지 말고 이제 가자.”

민준과 성민의 사이를 가로 막던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오고, 성민은 민준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민준의 심장이 쿵쿵쿵 울리고 있었다.

“에라, 모르겠다!”

민준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날개를 손에 꼭 쥔 채 소원을 빌었다.

“저도 새처럼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준의 몸을 환한 빛이 감싸기 시작했다. 민준은 등 뒤에서 무언가 펠럭거리는 것을 느꼈다. 날개. 등 뒤에 날개가 달려 있었다. 멍하니 날개를 바라보던 것도 잠시, 성민이 코 앞으로 다가온 것을 느낀 민준은 날개를 펼쳐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나는 이제 자유다!!!”

## Stage 4. 저녁 밤하늘

---

아름다운 저녁놀. 지금 이 순간, 민준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거였나? 나는 오늘을 위해 그 동안 억눌려 살았던 거야!”

민준은 아래를 바라보았다. 땅에서 웬 여자가 사람들을 때리며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겨 잠시 바라봤지만, 금세 심한 멀미를 느끼고 다시 하늘 위를 쳐다보았다.

“어우, 이 높이에서 땅을 보는 거는 어지럽네. 일단 날아볼까?”

민준은 다시 날개에 몸을 맡기고 비행을 시작했다. 구름에 부딪히고, 더 높이 날아가고...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진 민준은 지금까지 느낀 적 없던 자유를 즐기고 있었다.

“어...? 날개가 왜 이러지? 아까 구름에 부딪혀서 그런가? 살짝 녹은 거 같기도...”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민준은 날개가 처음보다 훨씬 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준이 말한 대로, 깃털은 닳아 있었고 깃털을 이어주는 밀랍은 녹아내려가고 있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민준은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안 돼!”

있는 힘을 다해 날개를 펼쳐보는 민준이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날개는 사라졌고, 그렇게 민준은 땅으로 떨어졌다.

‘쿵!’

거대한 굉음이 민준의 귀를 맴돌았다.

## Epilogue. 교실 (밤)

---

‘쿵!’

거대한 굉음은 여전히 민준의 귀를 맴돌고 있었다.

“으으... 떨어지기 싫어... 살려줘...”

민준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애가 뭐라는거야... 야! 일어나! 이 짜식이 야자 시간에 쳐 자고 말이야!”

순간, 민준은 눈을 크게 떴다. 눈 앞에 아름다운 저녁 밤하늘의 풍경 대신 무서운 얼굴을 한 담임이 보였다. 담임은 손에 든 회초리로 민준의 책상을 치고 있었다. 민준은 그제서야 정신이 든 듯, 벌떡 일어나 주변을 바라보았다. 옆자리의 성민이 웃음을 참고 있었다.

“허이고? 이거 완전히 폭 주무셨나 보구만? 김민준, 가서 세수라도 하고 와.”

민준은 교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여전히 몽롱한 상태로, 민준은 방금 전 꿈의 내용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꿈은 뭐였을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리얼했는데. 으아... 자유로워지고 싶다아아아~”

크게 하품을 하며 민준은 화장실로 들어갔다.

밖은 여전히 아름다운 밤하늘이 펼쳐져 있다. 커다란 새가 학교를 빙글빙글 돌다 점차 멀어져갔다. 어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